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제8장에 비추어 본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 (1)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제8장은 현대 마리아 신학의 기준점이 된다. '교회 헌장' 제8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마리아의 이러한 종속적인 임무"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속하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서만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교회 헌장' 제8장 62항은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으니, "이것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빠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구원 중개' 개념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헌장' 60항은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달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 결합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24~25쪽>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71명 참례 / 참례율 : 23.85%

평일미사	토 (3/15)	월 (3/17)	화 (3/18) 내촌 / 본당	수 (3/19) 본당 / 송정	목 (3/20) 송정 / 본당	금 (3/21)
	21명	11명	22명 / 29명	18명 / 19명	12명 / 26명	13명
주일미사 (3/16)	내촌 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 공소	송정 공소	교중미사	철정구역 피정
	23명	16명	19명	23명	70명	20명

우리들의 정성 사순 제2주일

주일 헌금	1,047,000	교무금	1,500,000	감사 헌금	600,000
양성, 복지, 원로	113,000	성전건축 적립금	231,000	미래 기금	76,000

교무금 안영재, 이경옥, 손삼술, 강호석, 노양호, 이은순, 최인순, 박영수, 권선화, 소옥선, 김종녀, 신명자, 이효순, 김시남, 강인식, 이성희, 이덕순, 사정애, 주선옥, 유옥순, 문창순, 문민자, 이영대

감사헌금 김승옥(크리스티나) 200,000 권일용(분도) 200,000 윤영진(요셉) 200,000

2025년 사순 시기 찬미받으소서 강론 자료

근대 산업 문명 해체를 통한 생태 문명으로의 재창조

인류가 기후위기로 인해 6번째 대멸종이라는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지하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근대 산업 문명과 그에 기반을 둔 도시 문명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지하광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한 문명의 틀을 만들어 놓고서는 진보니 발전이니 번영이니 하는 허황된 말들을 떠받들여오다 보니 마침내 지금과 같은 파국 직전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업 문명의 역효과에 따른 생태적 재난”(찬미받으소서 4항)에 처한 겁니다. 땅에 뿌리박은 민중의 자주적 지혜와 재능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산업 문명과 도시 문명이 진보요 발전이요 미래라고 생각하는 꿈에서 이제는 모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1. 정치집단이 조장한 근시안적 안목에서 벗어나기

먼저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증상에만 주목하고, 원인은 외면하는 정치 집단에게 걸었던 기대를 포기하고 시민들의 생태적 의식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제러드 다 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붕괴하는 데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결여’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동안 수많은 기후협약과 탄소 감축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국가 정상들의 합의나 기업의 자발적 책임과 이행 관리라는 방식과 기술은 기본적인 탄소조절 정책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성장 발전 사관과 시대구분 깨트리기

지식인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언론인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이니 진보니 하는 말 속에는 고대보다는 중세가, 중세보다는 근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한 생활이 좋은 삶을 판

단하는 잣대가 된다면 당연히 근대가 좋은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대 문명의 혜택을 누려온 인구는 전체 인류의 15%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대는 물질적 생활의 편리성이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온갖 면에서 가장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또한 가장 어리석고 부조리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대는 지속 불가능한 생활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쓴 나머지 인간 생존의 자연적 토대마저 전면적으로 교란시키고 붕괴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공동의 집”(찬미받으소서 1항)인 지구에 살아남고 인간다운 삶이 최소한이나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하게 하려면 성장 모델을 신격화한 근대 문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생태 문명으로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3. 생태 문명 재창조는 하느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 다시 이 땅에

생태 문명은 새로 창안한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인류가 살아온 기본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인간 역사는 대부분 비근대적 삶을 누려왔습니다. 비근대적 삶이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차원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는 이 지구에서 인간이 영속적인 삶을 보장하는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생태 문명의 재창조’란 근대가 이 세계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의 토착적 혹은 전통적인 삶의 복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근대적 문명을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창조는 근대를 통과해 오는 동안 불가피하게 손상된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수선하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갖가지 창조적인 지혜와 경험과 기술을 살려내야 합니다. 재창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다시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4. 생태 문명의 재창조는 지속 가능한 농경 사회로의 대전환

인간이 구축해 놓은 근대 산업 문명과 도시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농업, 농촌을 되살려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 중심의 생활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순환적인 생활방식’으로서 거의 유일한 인간 삶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대부분의 문명적 생활은 기본적으로 농사에 의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문명 모두가 농사에 의존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최소한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

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미국의 유명한 생태 사상가 <루이스 멀퍼드> 학설). 이 말은 지속 가능한 농경사회로의 대전환만이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농촌으로 인구가 분산되어서 마을 단위의 두레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5. 생태 문명은 관행농이 아니라 소농(가족농)과 유기농을 바탕으로 한 농경사회

소농이란 제 땅에서 나온 유기물을 순환하고, 우주적 자연의 법칙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씨앗을 갈무리하고, 그 씨앗을 맨땅에 심고 수확하는 자급적인 생명순환 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농(가족농)의 영성은 “나쁜 소비 습관과 강박적 소비주의 그리고 집착적 소비주의”(찬미받으소서 55항, 203항)를 뛰어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름길이란 인식에 앞서 작은 물건 하나도 애지중지하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 고쳐 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유기농이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지혜로운 농법 즉 풍부한 자연적 시비에 의한 지력의 보전과 철저한 물 관리로 토양 유실과 토양 오염을 막는 농사로 천년 만년 지속 가능한 농사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의 영성은 인간은 자연의 일원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인식을 하면서 사는 그 마음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공업처럼 자연을 파괴하고도 성립할 수 있는 산업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별생각 없이 뿌리는 제초제와 살충제 그리고 화학비료와 같은 농업용 독극물을 남용해온 관행농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행농은 ‘대지를 독살’하고 민초들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대 산업 문명에 물든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재창조’ 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일구고, 돌보라”(창세 2,15)고 말씀하신 농경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론적 의무”(찬미받으소서 64항)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되돌아보고 “생태적 회개”(찬미받으소서 217항)를 통해 지금 당장 생태적 삶으로 지구인 모두가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찬미받으소서 244항)